

## 고려대 편입 2019 인문

✎ [문제 1] 지문 (1)의 논지를 요약하시오 (30점, 350~450자)

✎ [문제 2] 지문 (1)을 바탕으로 지문 (2), (3), (4)에 등장하는 '꿀찌주자', '페렐만', '허삼관'을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70점, 1100~1300자)

### 제시문 1

행복한 사람은 실로 다채롭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며,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으로부터 쉽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흔한 불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가 흔들린다면 수없이 닥치는 커다란 불운에 의해서만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운으로부터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길고도 완결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크고도 고귀한 일들을 성취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탁월성은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으로서, 그것이 재능의 탁월성이건, 도덕적 탁월성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이 무엇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또한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전체 생애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며 복되게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는 그럴 것이다. 미래는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는 행복이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며, 활동은 생겨나는 것이지 소유물에 속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활동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의 활동은 그래서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며, 나아가 자신만의 것을 성취하는 것도 한편으로 즐거운 것에 속한다.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마련인데, 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친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친구들을 돕거나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탁월성에 맞는 활동에 쓴다.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지속적인 활동은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 반해,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라면 보다 쉽게 보장되고, 즐거운 활동은 그 자체로 더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

이다.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에 따른 행위들을 보며 기뻐하고, 악덕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을 역겨워한다.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불협화음의 선율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탁월성을 연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취 중에서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으며, 이는 그것이 학문적 지식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시문 2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태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냅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싫어서였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잘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된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것만 같은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통한 환호에 다른 사람들도 합세를 해주었다. 풀씨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이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끝인한 풀씨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많은 일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풀씨 주자에게까지 보낸 열광적인 박수갈채는 몇 년 전 어떤 경기에서 일등을 한 선수에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 제시문 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허름한 주택에서 사는 수학자 페렐만은 수학 분야 최대 난제 중 하나인 ‘푸앵 카레 추측’을 풀었다. 푸앵 카레 추측은 1904년에 프랑스 수학자 앙리 푸앵 카레가 제기한 문제로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가 매달렸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는 그 공로를 인정해 페렐만을 100만 달러의 상금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고 돈이나 권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시되길 원치 않는다”며 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전에도 페렐만은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인 ‘필즈 메달’도 거부했었다. 페렐만은 현재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낡은 주택에서 살며,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다.

### 제시문 4

성안의 생산 공장에서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 허삼관은 다른 몇몇 친구들처럼 궁핍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평생 피를 팔아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피를 팔아 어려운 시절을 넘겨온 허삼관은 어느새 노년이 되었다. 그날 기분 좋게 길을 가던 중, 문득 승리반점 앞을 지나면서 허삼관은 돼지간볶음 냄새를 맡게 되었고 젊은 시절 피를 팔 때마다 보양을 위해 먹었던 붉은 돼지간볶음과 데운 황주 두 냥이 먹고 싶어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팔려고 한다. 그러나 매혈(賣血)을 중재해왔던 혈두가 죽은 뒤 새로 온 심씨 성을 가진 젊은 혈두는 허삼관이 너무 늙어서 살아 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더 많다고 거절을 하며, 게다가 그의 피는 이제 돼지 피처럼 가구 칠감에나 어울린다고 비웃고 시시덕거리자, 허삼관은 성을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그는 자신이 어느덧 피를 더 팔지도 못할 만큼 늙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닌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허삼관의 세 아들과 아내 허옥란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 곧 바로 세 아들과 아내가 허삼관을 찾아오는데, 세 아들은 아버지가 운 이유를 듣고 고작 그것 때문이었냐고 아버지에게 핀잔을 준다. 그러자 허옥란은 아버지는 평생 피를 팔아서 너희들 모두를 키우고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세 아들에게 한바탕 욕을 한 뒤, 허삼관을 데리고 승리반점으로 들어간다. 피를 팔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돼지간볶음과 황주를 아내가 잔뜩 시키자, 비로소 허삼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피어났다.

<b>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b>			<b>이 름</b>	
<b>대학교</b>	<b>학년도</b>	<b>기출 / 모의</b>	<b>계열</b>	<b>번 문제</b>
<b>개 요</b>				

<b>문장 기능</b>	<b>해당 내용</b>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b>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b>			<b>이름</b>	
<b>대학교</b>	<b>학년도</b>	<b>기출 / 모의</b>	<b>계열</b>	<b>번 문제</b>
<b>개요</b>				

<b>문장 기능</b>	<b>해당 내용</b>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